

# 코로나19 확진 폭발세...유흥가 발길 '뚝'

### 감염시설 주변 동명동 일대 초토화...지역민 불안 커 상무지구도 썰렁...보건당국 "방역수칙 점검반 가동"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면서 주요 상권가와 유흥지역에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5일 '광주의 경리단길'이라고 불리는 동구 동명동 상가는 50m 정도 떨어져 있는 노인요양시설(코호트격리)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와 적막감이 감돌았다. 금요일인 지난 3일 저녁 손님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장사를 준비했던 동명동 한 맛집은 "젊은이들로 가득할 시간인데 너무 없다. 장사를 접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명해진 또다른 맛집도 좌석 절반을 채우지 못한 모습이었다. 동명동을 찾은 한 20대는 "업무상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방문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다"며 "확진자 동선과 겹치지 않는 곳을 모임 장소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가게 주인은 "대기줄이 우리 가게 앞까지 이어졌던 유명 맛집이 문을 닫았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나마 지난 4일부터 시민들의 인파가 나온 상무지구 일대도 지난 주말 한산하다 못해 정적이 흘렀다. 밤길을 밝히는 화려한 간판의 네온사인 과 어디선가 들려오는 댄스 음악도 한산한 거리의 공백을 채우지 못했다.

주변에 유흥시설이 많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돼 항상 젊은이들로 붐볐던 상무광장에도, 손님들이 줄을 길게 늘어선 유명 주점에도 발길이 뚝 끊겼다. 방역 당국은 유흥시설에 손님들이 몰려들 것을 우려해 60여명의 점검반을 꾸려 광주 유흥가 일대에서 지도 점검에 나섰다. 전자출입명부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출입자 발열 체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엄격한 기준으로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경우 "향후 핵심방역 수칙을 또 위반하면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업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코로나19가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시민과 업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준 광주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0명이다. 전남은 27명이다. 광주시는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공공 다중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전남도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김종찬 기자

### 조선훈 이사회 이사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학교법인 조선훈 학교 제3기 정이사 이사회를 이끌 이사장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선출됐다. 5일 조선훈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조선훈대는 지난 3일 오후 2시 정이사 9명 전원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 이사장실에서 제3기 이사회 첫 회의를 열고 김 전 헌법재판관을 이사 전원 찬성으로 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김 신임 이사장은 전북 고창 출신이며 전남고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합격 이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했다. 학교법인 조선훈대는 "이사장 선출에 따라 제3기 이사회가 대학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 성공적인 대학혁신을 이루고 향후 공영형 사립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김 전 헌법재판관이 5·18 당시 시민군 처벌에 앞장섰다"며 이사직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조기철 기자

# 학생도 확진자 잇따라...교육당국 '초비상'

### 일선 학교 등교수업 중단...북구 지역 원격수업 전환

광주·전남에서도 학생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육당국이 확산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에서는 전체 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이 검토 중이고, 전남에서는 모교를 방문했던 졸업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교직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민간수탁기관 검사 결과 광주 일동초 3학년 남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107번 확진자로, '광주 첫 초등학생 감염자'다. 이 학생은 99번 확진자인 어머니(30대)와 지난달 28일 일곡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무증상 감염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일곡중앙교회 확진자는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 5명(전북 28번 제외)을 포함해 15명으로 늘었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달 27일과 28일 일곡중앙교회 30주년 행사와 예배에 신도 900

여 명이 참석했으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 집단 감염이 현실화됐다. 시 교육청은 북구 관내 전체 180개 유·초·중·고교에 대해 12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북구를 제외한 학교는 오는 15일까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이 장기화될 경우 당초 6일부터 진행하려던 학교별, 학년별 축소 등교수업과 이어지는 기말고사와 대입 수능시험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서는 목포 하당중 1학년 남학생이 지난달 23일 광주를 다녀온 할머니로 부터 무증상 감염돼 같은 달 28일 전남 23번째 확진자로 판명된 데 이어 5일 영광공고 한 졸업생이 확진(전남 27번)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학교 교직원 5명이 자가격리됐다. /조기철 기자

이 졸업생은 복근무를 마친 뒤 취업 문제로 지난 1일 학교를 방문했고, 재학 당시 답입교사와 취업 담당교사 등과 면담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동료교사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던 전남 화순 모 고교와 나주 모 특수학교 교사 등 전남지역 교직원 60여 명이 광주 48번(60대 남성, 북구 오치동)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체 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조치된 바 있다.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잠복기 등을 고려해 출근이 중단되고 자가격리됐다. 한편 도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24시간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학교 내 2차 감염 예방의 핵심은 '밀집도 최소화'인 만큼 초등 700명 이상, 중등 900명 이상 과대학교의 격일·격주 원격수업 병행 방침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기철 기자



예배에 참석한 교인 14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시 북구 일곡중앙교회에 지난 4일 오전 북구청 관계자들이 시설폐쇄 안내문과 행정처분서를 부착하고 있다. (위)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한 교회에서 체온측정, 손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보고 있다. /김태규·김생훈 기자

책임자 지정 여부 등이다. 이날 광주에서 예배를 강행한 1,084곳 중 55곳이 50명 넘게 모여 예배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 "내 얘기 좀 들어줘"

○...술에취해 인근 파출소를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남성이 경찰서행.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59)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서구 동천동 동천파출소를 찾아 신세한탄을 하던 중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며 직원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동천파출소는 처음이지만 그 전에도 관내 여러 지구대를 찾아 소란을 일으켰다"며 "술을 마셨으면 집으로 가자지 업무가 많은 파출소와 지구대를 찾아 행패를 부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김종찬 기자

# 광주 교회 10곳 중 7곳 '집합예배'

### 방역수칙 위반 후속 조치 검토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신교단에 집합 예배 자제를 호소했지만, 교회 10곳 중 7곳 이상이 현장에서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지역 교회 1,492곳 중 1,084곳(72.6%)이 집합 예배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교인 50인 미만으로 예배를 본 곳(구획된 공간 기준)은 1,029곳이다. 나머지 55곳(5%)은 예배당에서 50명 넘게 모여 예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속출

하고 있는 만큼,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각 교회에 집합 예배를 자제하고 온라인·가정 예배로 전면 대체해달라고 호소했다. 불가피하게 예배를 할 경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방역 수칙은 50명 이상 실내 모임 금지, 발열과 호흡기 질환 증상자 포함 고위험군 출입 금지, 손 소독제 사용, 예배 참석자 간 일정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 장성토지 (급매)

### 광주에서 20분

(장성군청 ~ 장성댐사이)  
장성호 개발예정  
⇒ 국도 도로 12m접 (앞면30m)

● 1,000평 - 감정·시세 10억  
↳ 급매 6억

(용자 3억 가능) (분할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사무실 투자적합)

010-6670-9800 062-382-5500

## 상가 매매

### 첨단지구 (첨단병원 1분)

10층 중 10층24평

보 300만, 월 44만 (임대료료)  
▶ 매매가 8천만 (용 3천)

① 장성을 용강리 국도변점점(760평) → 매매가8천5백만	⑤ 장성 장성을 덕진리(1,243평) → 1억6천1백만원
② 장성 아은리(코너) 664평 → 3억5천만원	⑥ 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6억5천만
③ 장성 아은리(식당) 182평 → 5억5천만원	⑦ 담양읍메타세퀘아로점(1470평) → 매매가8억2천만
④ 장성 아은리(담) 379평 → 1억1천3백	⑧ 광주서구서창(197평) 시청에서20분거리 → 매매가5억9천만

010-6670-9800 062-382-5500

## 경매 교육

[기초반, 특수전문반]

이제 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실전부터 ~ 특수실전까지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엔페일)

- 1 기초 실전반 모집 (무료강의 병행) ①기초이론+실전
- 2 중급 실전반 ①(중급이론+실전)
- 3 고급 특수반 모집
- 4 전문반 모집 (직원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테디
- 5 평생회원제 실시

★ 경매물건추천 ★

1.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토,667평 건물 240평 ▶ 감정이 7억1천 → 4억9천7백
2. 서구 풍암동 (상가주택) 토지 61평, 건물 116평 ▶ 감정이 5억4천 → 5억4천

※ 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  
경매투자 연30%수익가능  
· 근저당 설정시 연20% 가능

010-6670-9800 062-382-5500